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89** 호

2016년 7월 15일

발행인 : 이 규 택

편집인 : 이 창 득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FAX : (02)720-8117

2016년 동문 친선 등반대회



▲ 동문 친선 등반대회 (2016년 4월 23일 노천강당)



▲ '제18회 관악대상 참여부문' 수상 (2016년 3월 18일)



▲ 여성동문회 총회 (2016년 4월 19일)

개교 70주년과 미래를 향한 사범대학의 도전

김 찬 종 (지구과학 76)
사범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36대 학장을 맡고 있는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김찬종입니다. 동문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부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 상태에서 출발하여,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수한 교사 및 교육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선도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1946년 개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배출한 학사가 23,000여명, 그리고 석사 및 박사가 8,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들은 교육계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여 각 분야의 최고 위치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했습니다.



도 올해에는 70주년 기념행사로 승격되어 개최될 것입니다. 사범대학의 7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대 역사관에 동문들의 활약상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사범대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범대학은 미래 한국인·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규범, 역량과 내용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교육·학습 환경과 방법을 탐구·개발하며, 이를 주도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은 더욱 '따뜻한 연구·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구의 국제적 수월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한국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하는 비전을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선 대학 내의 공동·융합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제적 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후배들이 훌륭한 교육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범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동문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대 수준의 동창회 장학금, 천재교육 장학금, 교육연구재단 장학금과 학과 수준의 많은 동문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은 서울대 어느 단과대학 못지않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업에 매진하여 장차 교육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국가적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동문 여러분의 모교와 후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범대학이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은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범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 법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단과대학 역사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사범대학의 역사는 1895년에 개교한 한성사범학교에서부터 계산하면 120년이 넘는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백암 박은식 선생께서는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백암 선생께서는 “사범학교는 군학(群學)의 근기(根基)”라고 하시며 사범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백암 선생님의 사상과 뜻을 후학들의 사표로 삼고자 2015년에 교정에 흉상을 건립하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이며, 한국 근대 수학과 자연과학의 아버지인 이상설 선생도 한성사범학교의 교관이셨으며, 한성사범학교 졸업생으로 시각장애인 학습의 대부로서 훈맹정음을 만드신 박두성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으로 개교한 이래로 우리 사범대학 동문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사범대학의 역사와 동문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70주년 기념 도서 발간, 원로 동문·명예교수 회고 강연회 및 동영상 제작, 사료전, 국내·국제 학술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어 온 교육연구소와 스포츠과학연구소의 국제학술행사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수상 소감

변 주 선 (영어 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얼마 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께서 향년 94세로 타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전에 할리우드 출신의 배우로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신 것으로 추모를 받기보다는 ‘평생 봉사하신 분’으로 전 세계인들의 애도와 추모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생전 언제나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온몸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주지사 부인이 되셨을 때 사회의 지도자들이 비행 청소년들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운동을 벌이셨고, 퍼스트레이디가 되셨을 때는 아주 과감히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 모금하시며 알츠하이머병과 맞셨습니다.



상을 부회장으로 동창회의 발전과 동창들의 유대관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과분하게도 모교 동창회에서 ‘제18회 관악대상 참여부문’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라는 영광스러운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하였기에 오늘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동창회와 사회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는 낸시 여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사회가 바라는 필요를 찾아 온몸을 던지는 태도와 바람직한 참여를 존중합니다. 저는 교직을 사랑하여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학교에서 7년 동안만 교직에 봉사하였습니다. 그 후 소녀들을 위한 세계적인 단체 걸스카우트 운동에 열심히 봉사하며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에 45년 이상을 봉사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가정과 사회적 문제에 고심하며 병원 의료정책과 행정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범대에서 22년 이상, 총동창회에서 12년 이

제 꿈은 더 많은 젊은이의 참여로 활력있는 동창회와 한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Pay Forward’-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나눔으로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여태껏 저의 봉사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평생 도와준 남편 김광태 박사와 자녀들, 지도자들과 동문들, 그리고 대림성모병원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분한 상을 마련해주신 동창회 서정화 회장님과 성낙인 총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함께 올립니다.

원고모집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으나 소식이 끊겨 궁금한 친구, 선배나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 소식이 궁금해 꼭 찾고 싶은 동문이 있으시면 회보를 통해 소식을 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전하지 못한 학창시절의 추억, 고백하지 못한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나 C.C 커플의 데이트 추억 등 몇십 년 전의 젊은 시절 추억을 되살려 보는 코너입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모든 동문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너에 모두 참여하여 릴레이로 이어 나가는 건 어떨까요?

-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매, 또는 워드 작성 시 10폰트로 A4용지 2장 이내 권장
- ♥ 원고주제 : 자유
- ♥ 원고마감 : 언제든지 보내 주세요.
- ♥ 제 출 처 : 우편 (우)03740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50 1010호(총정로3가, 피어리스아파트)
E메일 snueaa@hanmail.net

당선을 축하합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안상수 의원



원혜영 의원



심재철 의원



심상정 의원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



박경미 의원



김중로 의원

지역구

연번	성명	학번	소속	지역구	비고
1	안상수	체육 71	새누리당	인천중, 동구/강화, 옹진	3선, 인천시장 2선
2	원혜영	역사 71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구	4선, 부천시시장 2선
3	심재철	영어 77	새누리당	안양 동안을	5선, 부의장
4	심상정	역사 78	정의당	고양시갑	3선
5	안민석	체육 8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4선

비례대표

연번	성명	학번	소속	비고
1	김성태	영어 75	새누리당	초선/ 성균관대 교수
2	박경미	수학 83	더불어민주당	초선/ 홍익대 교수
3	김중로	체육 78	국민의당	초선/ 육사졸,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장

會長 動靜 (2016. 4. 1. ~ 6. 30.)

- 2016. 4. 19 여성동문회 정기총회 참석
- 4. 23 동문 친선 등반대회 주관
- 5. 09 동창회 상임이사회 주관
- 5. 11 사범대학 스승의 날 사은 행사 참석
- 6. 17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동창회 來訪 人士 (2016. 4. 1. ~ 6. 30.)

- 강의정(영어 61) 前 여의도고 교장, 본회 감사
강남구청 교육발전 자문위원
- 김범기(물리 66) 前 한국교원대 대학원장,
본회 문화전략부 부회장

- 김영애(생물 64) 前 대치중 교장, 본회 조직부 부회장
- 변주선(영어 61)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본회 前 동창회장
- 신정숙(화학 67) 前 세종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부회장
- 이병석(수학 65) 前 트라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
본회 사업부 부회장
- 이규석(지학 66) 前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늘푸른교육포럼 회장
본회 대외협력부 부회장
- 이삼선(지리 71) 한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본회 조직부 이사
- 이상진(화학 61) 前 서울시 교육위원, 한국예절교육협회 이사장
- 이준순(국어 76) 前 서울학생교육원 원장, 본회 출판부 부회장
- 임동호(교육 61) 前 사학연금 상무, 본회 총무부 부회장
- 엄영주(생물 66) 前 등촌고 교장, 본회 대외협력부 이사
- 주복남(영어 68) 前 명일중 교장, 본회 여성부 이사
- 채현구(체육 78) 노원고 교감, 본회 문화전략부 이사
- 최기숙(체육 65) 前 자양고 교장, 본회 여성부 부회장

■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3. 22.)

지난 3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동창회 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11일 열린 청관대상 시상과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 4월 23일 개최된 동문친선 등반대회 준비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제39대 동창회 임원 선정과 2016년도 추계 역사문화 탐방지 선정 및 시행 일자에 대한 협의도 하였다.

다. 식후에는 채현구(체육 78) 동문의 진행으로 과별 소개와 동문인사가 있었고 참가자 전원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타원 크로스가방과 문용린(교육 67) 동문이 후원한 휴대용 핸드폰 배터리를 주었고 이삼선(지리 71) 동문이 고급골프공 5세트의 경품을 후원하였다. 올해의 등반대회도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회를 활성화하며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젊은 동문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자는 다짐을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 2016년 동문 친선 등반대회 개최 (4. 23.)



지난 4월 23일(토) 오전 10시 모교 노천강당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가 열렸다. 매년 4월 연례행사로 열리는 등반대회는 올해부터 노천강당에서 집결하여 등반코스를 A코스는 캠퍼스 투어코스, B코스는 40분거리의 가벼운 코스, C코스는 관악산 중간까지의 일반코스로 나누어 봉사학생의 인솔하에 각자의 체력에 맞게 산행을 하였다. 이규택 동창회장을 비롯해 올해에도 원로동문이신 박봉배(국어 49) 동문께서 참가하시어 건강한 체력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었다. 등반 후에 동창회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前 동창회장 변주선(영어 60) 동문이 준비한 오렌지를 후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

■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5. 9.)



지난 5월 9일(월) 12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4월 23일 모교 노천강당에서 개최된 등반대회의 결산보고에 이어 추계 문화 탐방지를 선정하였다. 10월 22일~23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문화 탐방은 올해 경주로 선정하였으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고 회비는 문화관광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14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제39대 동창회 신임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견례를 겸하여 향후 2년간 동창회를 잘 끌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현재 임대 중인 연남동 동창회관의 임차인이 지방 발령 및 신병을 사유로 임차인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조건이 불합리하여 수용거부를 하였으며 기존 임차인이 동일 조건 하에 후속 임차인을 물색하기로 협의하였다.

■ 여 성 동 문 회 소 식 ■

■ 2016년 여성동문회 총회 개최

지난 4월 19일(화) 11시 30분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 세미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50여 명의 선·후배 동문은 서로 반기며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초대동문 류길자(교육 61) 외 7명을 환영하며 김찬중 서울사대 학장님의 축사에 이어 '중장년의 멋지고 즐거운 노후'라는 한정수님의 특강을 들었다. 점심 식사 후 다 함께 즐거운 노래 부르기 와 행운권 추첨으로 서로서로 다정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여성동문회를 이끌어 갈 신임회장으로 주복남(영어 67) 동문을, 조청자(생물 61), 최창숙



(가정 68) 동문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모두가 다음 총회를 기약하며 대학 시절로 돌아간 마음으로 교가를 씩씩하게 부르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며 해산하였다.

1960년 4월

김 광 휘 (국어 60)
방송작가

기억에 남아 있는 그해 봄, 그러니까 1960년 봄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대체로 날씨가 화창하였다. 용두동에 있는 일본식 붉은 벽돌교사가 서울사대였다. 운동장 끝에 클로버밭이 있었고, 연식 정구를 할 수 있는 코트가 있었다. 교사 한가운데에는 볼품없는 강당이 있었고, 강당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 피아노 가에 합창단이 모이고 새내기인 나는 우선 합창단에 들어 슈베르트의 송어를 열심히 연습하였다. 노래를 많이 불러 배가 고플 때는 강당 뒤에 언덕처럼 누워 있는 청량대에 올라가 풀빵도 먹고 도시락도 까먹었다.

그때 선배들은 대광고등학교로 통하는 우중충한 냇가에 있는 곰보주탕이라는 집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해주었다. 큰 알루미늄 주전자에 막걸리를 하나 가득 담아 새내기들에게 ‘원샷’ 훈련을 시켰다. 내가 졸업했던 대전고등학교의 직속 선배인 손중근 형과 신철수 형이 국어과에 새로 들어온 고등학교 후배 3명을 잘 챙겨주었다. 사람 좋은 신철수 형은 막걸리를 권하면서 연신 채근했다.

“쭉 들이켜, 쭉, 쭉 - 대학생은 술도 잘 마셔야 하는 거야. 특히 국어과는 낭만이 있어야 하니까”

잘 챙겨주는 신철수 형에 비해 손중근 형은 언제나 말이 없었다. 손중근 형은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파란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책을 끼고 다니며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주었던 형이었다. 그래서 나는 재수를 해서 입학하였고,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을 수 있었다.

“빨리 내려와! 촌놈의 새끼들아,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3층 강의실에서 정말 재미없는 이하운 교수님의 비교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선배들이 큰 소리로 후배들을 채근하였다. 강의를 듣다 말고, 모두 뛰쳐나가고 선배들과 함께 열을 맞춰 교문을 박차고 나갔다. 1960년 4월 19일 아침이었다. 그날은 해가 짹짹 내리쬘고 날씨가 썩 좋았다. 신설동으로 뛰어나가자 고대생들이 안암동에서 달려 나오고, 서울상대생들이 같은 안암동 골짜기에서 고대생들의 뒤를 물고 달려왔다. 누가 지휘한 것도 아닌데 모두 열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노래도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무조건 따라 부르기 식의 즉흥 연주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나....’

동대문을 돌아 서울 운동장을 끼고 을지로로 들어설 때, 을지로6가의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멍하니 서서 우리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우리는 기가 살아서 순경들에게 소리쳤다.

“뭘 쳐다봐! 인마. 너희들도 여기에 켜!”

데모대들이 을지로를 거쳐 서울 시청 앞으로 들어설 때 덕수궁에 있던 파출소의 순경들이 모두 모자를 벗어 던지고 덕수궁 담을 넘어 도망치고 있었다. 데모대는 시청을 끼고 중앙청을 바라보며 광화문 네거리에 이르렀다. 가히 인산인해였다. 사람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실감 나는 표현일 것이다. 어느 여대생은 낯도 모르는 남학생의 목에 올라타고 플래카드를 흔들어댔다. ‘독재 정권 물러나라! 이승만은 하야 하라.’ 군의 명령을 받고 나왔음직한 탱크들이 사람의 바다에 밀려 고도처럼 갇혀 있었다. 탱크병들은 학생들이 던져 주는 빵을 받아먹으며 싱글싱글 웃기만 하였다.

시위대의 선두가 중앙청에서 효자동으로 꺾어질 때 중앙청 안에서 소방차 사다리가 쑥 올라왔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가 싶더니 물속에 빨간색이 섞여 나와 여학생들의 하얀 블라우스에 붉은색을 칠했다. 여학생들은 질겁을 하며

“어머, 난 몰라, 이걸 어떻게 해”, “내 옷 물어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우리가 효자동 골목으로 들어가 지금은 청와대로 불리는 그 대통령의 집무실, 경무대의 입구가 보일 때쯤 그때까지 겨울동복을 입고 있던 경찰들이 무릎짜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생각했다.

“설마, 너희들이 쏘겠느냐. 우리 청청한 젊은이들의 가슴을 향하여”

그러나 사정은 급속히 달라졌다. 탕탕탕! 총소리가 들리며 무릎짜 자세를 한 까만 정복의 그 경찰들의 총구에서 빠각빠각 불빛이 보이고 학생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모두 효자동 골목으로 뛰어들거나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 머리들을 아무데나 쑤셔 넣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골목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신음이 들려왔다.

“나와 봐! 나와 봐! 쓰러진 친구들을 태워 나릅시다”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남의 집 부엌에 숨었다가 뛰쳐나가자 피 냄새와 함께 화약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영어과에 함께 입학한 최준명 군이 소리쳤다.



“김광휘! 국어과 손중근 선배가 쓰러졌어! 자, 함께 부축해 들자!”

그날, 하늘색 신사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나온 손중근 선배가 의대생이 들고 온 담가에 실려졌다. 최준명과 나는 그 담가를 부여잡고 을지로6가까지 뛰어갔다. 그곳에 메디컬 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신없이 응급실에 손중근 선배를 밀어 넣고, 바로 옆에 있는 음악대학의 숙직실로 뛰어들어갔다. 숙직하고 계시던 음대 교수님들이 놀라며 말씀하셨다.

“저 수돗가에 가서 피들 닦고 여기서 자고 가. 오늘 저녁에는 통금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음대 교수님들이 사다 주신 빵으로 저녁을 때우고, 음대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였다. 1960년 4월 19일 밤이었다.

대전 용두동 성당 밑에서 손중근 선배의 장례식이 있었다. 어느 중년 부인이 구슬피 울며 몸부림치다가 교복을 입은 나를 보고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말했다.

“학생은 어느 대학이야?”

“네, 서울사대 학생입니다”

부인은 다시 목놓아 울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손중근 학생도 그 대학에 다녔는데... 우리 학중이는 누가 가르쳐줄까. 손중근 학생이 너무나도 잘 가르쳐줬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우리 학중이는 누가 책임질까”

나는 그 와중에 부인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아드님 학중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그럼 장례 치르고, 우리 서울에서 만나, 신당동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정확히 보름 뒤, 나는 신당동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 손중근 형의 일체를 넘겨받았다. 송중근 형이 쓰던 앗은뱅이책상, 그가 쓰던 책장과 국어사전 그리고 국어학개론과 시집 열 권, 그가 덮던 이불과 따뜻한 요, 심지어는 손중근 형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다는 은수저 한 벌까지 넘겨받았다. 그리고 내가 가르칠 박학중이라는 중3 학생은 정말로 공부를 지지리도 못 했다. 그놈은 내가 책만 펴들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여드름을 짜거나 영화 얘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녀석은 억지로 억지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는 발을 걸쳤다. 나는 밤마다 손중근 형이 덮고 자던 이불을 덮고, 그가 깔던 요를 깔 채 그가 뒤적이던 시집들을 보다가 그 시집으로 얼굴을 덮고 잠을 청하였다. 하지만 손중근 형은 꿈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가끔가다가 말썽꾸러기 학중이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꿈속에서 손중근 선생님을 만나보니?”

녀석도 싱겁게 대답했다.

“아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먼 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올해 4월에는 수유리에 있는 4·19 묘역을 찾아가지 못했다. 70대 중반을 넘어 늙어가는 일이 숨이 차서 그럴까. 성북구에 있는 그 묘역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손중근 형, 미안해요’

2016년 추계역사문화탐방 안내



- 일 시 : 2016년 10월 22일(토)~10월 23일(일) <1박2일>
- 장 소 : 경주
- 숙 소 : 경주 The-K호텔(경남 경주시 신평동)
- 주요 탐방지 : 양동마을, 김유신 장군묘, 안압지, 읍천향 파도소리길, 감은사지
- 회 비 : 140,000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221-910158-88607(예금주: 이규택)]
- 신 청 : 40명 선착순 마감

Tel. (02) 720-8116, 8120 / Fax. (02) 720-8117

■ 관사장학회 창립식 및 장학금 수여식



지난 3월 25일(금) 10-1동 101호실에서 관사장학회 창립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관사장학회는 관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동시에 관악구와 사범대학을 뜻하기도 한다. 대학 동문이 아닌 지역주민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관사장학회 창립식과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했으며, 2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태국 카세사대학교와 국제공동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태국 카세사대학교(Kasetsart University)와의 국제공동심포지엄 및 워크숍이 지난 4월 4일(월)에 10-1동 401호에서 개최되었다. 사범대학이 주최하고 'BK21 플러스 더불어 과학교육사업단', 'SSK 동아시아수학과 교실문화 연구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 김찬중 사범대학장, 차트리 파이캄타 카세사대 과학교육학과장을 비롯하여 카세사대 교수 및 대학원생 11명을 포함한 약 50명의 교수와 연구진,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 교육 연구 분야에서 양 대학의 국제적 식견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본 교류가 양국의 과학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사범대학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사범의 길'이 지난 4월 15일(금) 오후 2시에 교육정보관(10-1동) 101호에서 정원식 前 국무총리를 모시고 학장단 및 교육실습학생 200여 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사범대학 명예교수인 정원식 前 국무총리가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에 끼친 천원 오천석 선생의 업적'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부설여자중학교 김근수 실습부장으로 부터 나를 발견하는 시간, 교육실습이란 주제로 교육 실습 사전교육을 받았다.

■ 스승의 날, 은사님 사은 모임



'스승의 날, 은사님 사은 모임' 행사가 5월 11일(수) 12시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원로 명예 교수진, 동창회장, 학장단, 학과장, 그리고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대표의 감사 편지 낭독을 시작으로 제자들은 은사님께 꽃과 편지를 드리며 감사를 표하였고, 이규택 동창회장은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학생들은 준비한 노래, 무용 등의 공연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사은 행사를 통해 스승과 제자의 교감이 풍성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송되어 오는 회보는 재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보리수, 슈베르트의 보리수」

엄영주 (생물 66)
前 등촌고 교장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에 나오는 성문 앞 보리수와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서 득도하였다는 보리수는 어떤 나무일까? 우리 식물에 눈뜨기 시작 하던 90년대 초 어느 날 든 의문이다. 수소문하니 인도의 보리수나무(Bo tree)는 아열대 식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다고 한다. 보리수나무를 직접 보러 당시 항공편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족자카르타 보르부르드 사원을 찾았다. 사원 둘레에는 큰 보리수나무들이 나그네를 반겼다. 나는 사원 규모에도 놀랐다. 화산지대인데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미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금 최대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불교문화가 8~9세기에 꽃피었다니 전혀 모르던 사실이다. 뭇 깨닫기에는 턱도 없는 시간이지만 사원 근처의 큰 보리수나무들과 하루를 보냈다.



생가에는 지금도 피나무가 자라고 있다 한다. 직접 한번 가볼 기회를 찾고 있다.

주변의 식물에 관심을 두다 보면 이들 식물이 우리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묘에 가면 조선왕조 위패로 쓰인 나무들이 있다. 밤나무이다. 밤나무는 조상을 알아본다 하여 위패는 밤나무로 만들었다. 올림픽대로변에 많이 심겨 있는 회화나무는 나라에서 중요시하던 나무로 주요 관직에서 물러날 때 하사하던 나무이며 궁궐, 사원에 심던 나무이다. 창경궁에는 600년 된 회화나무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볼 만하다. 선비들이 서원에 심던 나무이니 학교의 교목으로도 자격이 있는 나무이다.

전나무 산책길로 유명한 전북 부안 내소사에 가면 보리수나무가 나무 소개 표찰과 함께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유명 사찰에는 보리수나무가 한두 그루씩 있다. 사찰에 심는 나무이다. 그런데 사실 석가모니의 보리수와 다른 종인 피나무이다. 불교가 전해 내려올 당시 석가모니의 보리수나무가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아 심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나무는 인도의 보리수나무는 아닐지라도 불교와 관련이 깊다. 잎 모양이 석가모니의 보리수와 비슷하고 열매로 염주를 만든다. 충북 영동 영국사에 가면 이 나무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걸어놓았다. 이 보리수나무는 속리산 법주사에도 고창 선운사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리장나무라고도 불리는 또 다른 뜰보리수가 있다.

우리 나무 중에는 다른 나라의 국화가 된 나무도 있다. 왕벚나무가 바로 그렇다. 일본의 국화인 왕벚나무는 제주도 한라산 중턱이 자생지이다. 전남 해남 대흥사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가 있다. 남의 나라 국화인 벚꽃으로 축제를 연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은 사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봄을 알리는 생강나무이다. 생강나무를 알고 그 소설을 읽는다면 감흥이 더할 것이다. 생강나무를 알면 자연히 산수유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산에 자생하는 생강나무와 달리 인가 부근의 산수유나무는 꽃이 필 무렵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서울의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능력 성적이 낮은 것은 그들이 자연을 접하지 않고 교실에서, 학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식물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문 앞에는 커다란 보리수(Lindenbaum)들이 5월 하순쯤이면 진한 향을 내며 피고 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로 시작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보리수를 연상케 한다. 사실 이 나무들도 석가모니의 보리수와는 다른 피나무 종류이다. 영어로는 'Linden'이라 하며 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명명법을 창시한 린네(Linne)의 성도 이 나무에서 따왔다고 한다. 스웨덴 그의



요즘 자연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에게 주변의 식물에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자연 결핍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의 식물에 대한 관심과 공부하는 첨단 기술 사회의 피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식물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과 교감하는 지름길이며 인지발달을 위한 상징과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교육학과

◆ 학과 동문회 홈커밍 및 등산대회 개최



교육학과 동문회가 주최하는 '2016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동문가족 홈커밍 및 등산대회' 행사가 지난 5월 5일(목)에 모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어린이날에 정기적으로 열려온 교육학과 동문회 홈커밍 및 등산대회는 1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례행사로, 동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식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이다. 올해에도 학과 교수 및 각계각층의 동문,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즐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같은 날 김성열(교육 75, 경남대학교 교수) 동문이 나일주(교육 72, 서울대 교수) 동문회장 후임으로 차기 교육학과 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국어교육과

◆ 《同門文集》, 《國語教育科70年史》 편집위원회 및 기별 회장 모임

2016년 3월 30일(목), 4월 12일(화)에 '同門文集' 및 '國語教育科70年史'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열렸다. '동문문집'에는 인연, 교육, 직업, 예술, 취미 등을 주제로 한 국어교육과 동문들의 개성적인 글을 담아 동문 사이의 정리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국어교육과 70년사'에는 기별 동문들의 활동상을 서술한 글을 모아 '逸話同門會史'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2016년 4월 29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어교육과 동문회 기별 회장 모임이 열려, 우한용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강현재 부회장, 빈중호 감사 및 기별 회장들이 동문문집 발간과 국어교육과 70주년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교육과

◆ 2016년 동문회 정기총회

지난 4월 23일(토) 영어교육과 동문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이재희 동문회장(74)을 비롯하여 변주선(60) 동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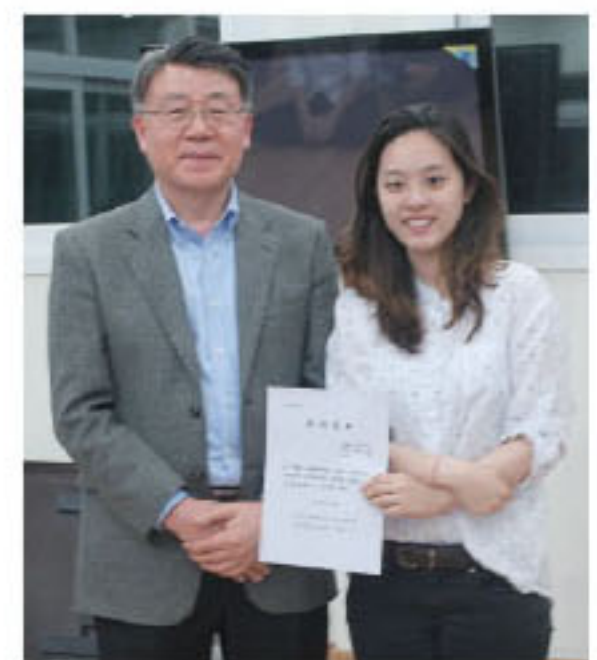


20여명의 선·후배 동문이 모여 상반기 영어교육과의 소식을 나누고 학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재철(77, 새누리당 안양동안을) 동문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김성태(75, 새누리당) 동문이 참석하여 당선을 축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물교육과

◆ 채집 대회 및 동창회 장학금 수여

생물교육과 전체가 함께하는 채집대회가 2016년 4월 28~30일(2박 3일) 동안 가평의 유명산에서 진행되었다. 등산 및 식물 채집, 동아리 소개, 장기 자랑, 채집 결과 발표, 레크레이션 및 뒤풀이 등의 시간을 가지며 전문성 신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물교육과 동문회(회장 김원선)에서 재학생 후배를 위한 1학기 동문회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하였다.



사회교육과

◆ 강감찬 10리길 가족동반 문화답사



사회교육과 총동문회(회장: 김경희 74)는 지난 5월 28일(토) 가족 동반 문화답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봄 행사는 문화답사 형식으로 진행되어 동문 모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었다. 오전 10시 낙성대역에서 집결하여 12시까지 약 2시간 여 동안 강감찬 생가터, 벽화길, 낙성대 공원, 안국사, 관악산 둘레길 등의 장소를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악구청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낙성대의 역사적 의미와 강감찬 장군의 생애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50년대 학번 선배님부터 재학생까지 두루 참여하여 동문 간 친교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과 동문이 참여하기를 고대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 체육교육과

◆ 모교 방문의 날



지난 4월 30일(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동문회인 체우회 주체로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노희덕(체육 53) 명예교수를 비롯해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70여 명의 졸업생들과 1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전, 육상, 테니스, 축구, 농구, 핸드볼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선·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가정교육과

◆ 정기총회 및 특강



지난 2016년 5월 27일(금)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생활과학대학 구재옥 회장과 가정교육과 회장 이해숙 동문의 주선으로 100여 명이나 되는 동문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년 봄마다 이루어지는 특강 및 정기총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동문들의 호응이 좋다. 이날은 '스웨덴의 시니어 코하우징'이란 제목으로 최정신(67, 前 가톨릭대 교수) 동문의 강연이 있었다. 세련된 이탈리아 음식으로 점심도 먹고 동기 및 선후배들과의 친교도 나누고 대학로의 옛 추억에도 잠기는 낭만을 누려보는 좋은 모임이 되고 있어 내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

■ 청 사 로 타 리 소 식 ■



청사로타리(회장:이상진)는 지난 4월 30일(토)에 서울구세군후생원 지도교사 포함 학생 11명과 함께 김포 아라뱃길에서 수상체험활동을 하였다. 임변장 회원(체육 60, 서울대 명예교수)이 주선한 이번 체험은 '노를 젓는 배, 카약(자전거 배)' 등을 체험한 후, 요트를 타고 인공폭포까지 왕복 1시간을 물길과 어우러진 산야를 음미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ZEPHYROS YACHT CLUB' 버스 식당에서 훌륭한 점심을 제공하여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후원행사가 부모님 사랑의 손길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 · 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은사님을 생각하며....

홍 지 준 (화학 74)
(주)코캠 회장



1950년대 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 '부활(復活)'을 제작하셨던 이원복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왔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 비행기에 '復活'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필 휘호를 내렸던 이 비행기의 일부가 어느 시골의 창고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신 이 선생님이 나의 은사이신 이태녕 교수님을 사석에서 만나 전기 비행기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다가 외국 전기 비행기에 장착된 이차전지에 'Kokam'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있었다며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이때 이 교수님께서 그 배터리는 내 제자가 만든 거라며 자랑하시는 바람에 졸지에 같이 만나 뵈게 되었다. 내친김에 이원복 선생님의 자택에 들러 차 한잔 한 적이 있었다. 그 날 이원복 선생님은 복원된 '復活' 경비행기에 내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 비행기로 만들어 창공을 날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다음날 이원복 선생님과 같이 사천비행장으로 날아가 '復活'의 시운전을 같이 참관하게 되었다.

편지 속에는 같이 찍은 사진과 관련 자료들이 동봉되어 있었다.



▲ 오른쪽: 이원복 선생님 중앙: 이태녕 박사님
왼쪽: 필자 2011년 사진

까마득한 후배에게 일일이 사진과 자료들을 담고 편지까지 써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정성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항상 진지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이 있어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 2011년 사천비행장 격납고에서
'부활'의 시운전 직전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기술 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復活'을 전기 비행기로 개조해 드리는 못하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라임펄스 (Solar Impulse) 태양광 비행기에 내가 만든 배터리를 장착하여 성공리에 세계 일주 비행 중이다. 낮에는 태양광에너지로 날고 빛이 없는 밤에는 순수 내 배터리의 힘으로 날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이원복 선생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 같고 제자를 사랑하시는 이태녕 교수님께 작은 자랑거리를 만들어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태평양을 횡단하고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안착한 솔라임펄스 비행기를 출장 중인 아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 내 배터리를 장착한 솔라임펄스비행기

두 분처럼 나도 훌륭한 선배가 되어 후학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두 선배님. 사랑합니다.

■ 문용린(교육 67)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취임

문용린(교육 67, 前 서울시 교육감) 동문이 지난 3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제 2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교육자산규모가 26조원에 달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모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장관, 한국교육학회장, 서울시 교육감 등을 역임한 문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 김대행(국어 61)

〈석학인문강좌〉강연

김대행(국어 61, 前 서울대 교수) 동문이 6.4(토)부터 6.25(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시와 언어문화: 우리 시가 들려주는 삶의 방식 몇 가지'를 주제로 〈석학인문강좌〉강연을 했다. 석학인문강좌는 국내외 최고 인문학자들의 연속 공개강좌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였다.



■ 우한용(국어 68)

소설집 〈호텔 몽골리아〉발간

우한용(국어 68, 서울대 명예교수) 동문이 올 4월 소설집 〈호텔 몽골리아〉를 출간하였다. '소설가, 한가한 인간인가'라는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매처럼 떠도는 화상들', '몽태와 만무방들', '3D픽션을 모색하면서', '작가의 소설론'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불바람』, 『귀무덤』, 『멜랑콜리아』 등의 소설집을 발간한 바 있다.



■ 노유섭(국어교육 72)

제1회 계간문예문학상(시 부문) 수상

노유섭(국어 72, 시인 소설가) 동문이 지난 1월 15일 계간문예에서 수여하는 제1회 계간문예문학상(시 부문)을 수상하였다. 삶의 깊이와 넓이를 작품으로 녹여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동과 감흥이 사라진 시대에 시를 통한 감동과 카타르시스, 삶의 의미 반추가 이루어지고 장차 나아갈 길의 제시까지 이루어진다면 제 몫을 다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힌 노시인은 2014년 한



국현대시인상을 수상하였고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관악지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제펜한국본부 이사·기획위원이다.

■ 김종도(영어 60)

신간 번역집 '사세동당'(저자: 노사) 전 3권 출간

김종도(영어 60, 前 수원대 교수) 동문은 노사의 대하소설 '사세동당'을 출간했다. 대하소설인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화에 짓밟힌 중국 북경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인간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어떻게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갔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 원한과 복수가 아닌, 전쟁이 없는 이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김동문은 "퇴임 후 중국어를 공부한 10년 세월을 꼬박 '사세동당' 번역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간의 잔혹한 본성을 극복하고 이해와 상생의 길로 인류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 책의 감동을 많은 이들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흥일(영어 60)

"2016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 선정

박흥일(영어 60,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 동문은 월간 뉴스메이커와 한국인은 최근 종교사회공헌부문에서 "2016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 선정하여 대상을 수여하였다. 박 동문은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 초대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직장 복음화와 기독교 사회문화창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 장승일(불어 72)

『참은 참이라고 말한 것이다 - 텍스트의 정합성을 위하여』 출간

모교 불어교육과에 재직 중인 장승일(불어교육과 72) 동문이 언어학 연구서 『참은 참이라고 말한 것이다 - 텍스트의 정합성을 위하여』를 출간하였다. 언어학의 의미론 분야를 연구해 온 장승일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어의 문장 간 연결어를 프랑스어의 문장 간 연결어와 비교·분석하면서 논리의 미적 관점에서 특징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 유자효(불어 74)
『시 읽어주는 남자』 출간

유명 방송인이자 시인인 유자효(불어 68) 동문이 여러 시인들의 시에 대한 감상과 해설을 곁들인 『시 읽어주는 남자』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유자효 시인이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보내며 읽은 시집에서 마음을 울린 시들을 엄선했다. 잘 알려진 김광규, 강은교, 함명춘 시인의 시부터 비교적 낯선 시조들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독자들이 시 읽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언어와 사유를 발굴해 내고 있다.



22일 제23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소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개인 발전, 지역 발전, 나라 발전을 연결하고 문화·사회·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이자 인류 공동 번영의 염원을 실현하는 실천수단이라며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해 우리나라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회원단체에 총 200만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 최동신(불어 74)
『품격 있는 프랑스어 이야기』 간행

최동신(불어 74, 가톨릭대 불문과교수) 동문이 프랑스어 문법서 『품격 있는 프랑스어 이야기』를 간행했다. 이 책은 불어 문법에 대해 충실하면서도 흥미로운 설명으로 정평이 난 필립 마르티농의 문법서를 번역한 역작으로서 최동신 동문이 그동안 이어 온 프랑스어 문법 연구와 관련 저술 번역의 연속 작업이다.



■ 장창현(체육 73)
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장창현(체육73, 선문대교수)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운동생리학회는 지난 4월 2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운동생리학회는 1988년 창립된 운동과학 관련 단일 분과 최대 규모의 학회로 4개국 130여 개 대학 2,000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민병관(역사 79)
제35회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5월 13일 민병관(역사 79, 양재고 교장) 동문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의 표창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평소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직무에 특별히 헌신한 교육자에게 그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표창이다.



■ 안양옥(체육 7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안양옥(체육 75, 前 한국교총 회장) 동문이 지난 5월 24일 제3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6년 동안 교총 회장으로서 교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초·중·고 현장에서 정부의 등록금 지원제도를 미리 잘 알 수 있도록 해 등록금 부담으로 진로 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고, 우리나라의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지원제도가 ‘교육 한류’로서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취임의 포부를 밝혔다. 안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 소진광(지리 75)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취임

소진광(지리 75, 가천대 대외협력부총장) 동문이 지난 4월

동문동정란은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승진, 영전, 출판, 수상 등 좋은 소식을 모든 동문과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동창회비 납부안내!

동문회원 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 간의 교류 지원방안, 각 과 동문회, 시·도지회의 활성화와 같은 여러 동창회 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운영하고 동창회가 도약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는 여러 동문들의 무한한 애정과 응원, 헌신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비의 납부가 초석이 되어 동창회가 구축됨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 동창회비를 납부하여 탄탄히 발전하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부디 많은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이규택)

※ 문의처 : 동창회 사무실 Tel. (02)720-8116, 8120

회 장	: 2,000,000원
고 문	: 300,000원
자문위원	: 200,000원
부회장·감사	: 300,000원
이 사	: 50,000원
일 반	: 30,000원
평생회비(1회)	
이 사	: 200,000원
일 반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6. 3. 2. ~ 6. 30.)

평생회비(20만원)

김정기(사회 74)	박찬도(국어 58)	오석종(교육 76)
우종옥(지학 60)	이정희(영어 58)	정해성(화학 60)
탁해경(수학 74)		

고문·이사회비

<30만원>	강의정(영어 61)	김영애(생물 64)	이시우(국어 71)
<10만원>	신찬우(영어 48)		
<5만원>	김영진(교육 51)	김충연(생물 58)	김홍우(물리 54)
	목창수(생물 66)	박찬구(국어 56)	엄영주(생물 66)
	이규석(지학 66)	이은신(경영사강45졸)	
	전성택(국어 54)		

일반회비 (3만원)

[국어]	정수룡(55)	강정식(59)
서부원(53)	김준한(61)	
유상주(58)	노갑기(66)	
조연희(58)		
[영어]	이호상(57)	
최길순(49)		
정기숙(55)	이흥중(54)	

[지리]

강신호(55)
박성호(55)
국해웅(63)
최석진(63)
박제동(70)

[수학]

김충길(2003)

[물리]

김희분(50)
곽희로(61)
김계연(68)
최돈형(68)

[생물]

이병훈(47)

김여순(?)

김준호(50)
노두호(51)
김규삼(52)
장일권(53)
윤백중(55)
한창림(59)
손영목(60)
조창재(61)
박천배(74)

[지구과학]

장완배(61)
한진희(59)
김태희(2005)

[체육]

윤익모(62)
이만형(62)

3/11 성명학과 미상 3만원
4/21 김영국(학과 미상) 3만원

장학금 후원

허현호(수학 67) 15백만원

정기총회 찬조

김영의(사회 49) 20만원	황선용(사회 57) 10만원
강의정(영어 61) 20만원	변주선(영어 61) 50만원
이규택(교육 61) 20만원	

동문 친선 등반대회 찬조

변주선(영어 60) 오렌지 1BOX	이규택(교육 61) 20만원
박명학(영어 61) 30만원	정근화(물리 63) 10만원
문용린(교육 67) 휴대용 배터리 100개, 사범대학 무료주차권 60매	
이삼선(지리 71) 5세트(고급 골프공세트 외)	

♥ 동문님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지사항

2015년 11월부터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연하장도 발송할 계획이오니, 회비를 납부하신 후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 동문의 연락처가 없거나 틀려서 감사 문자를 드리지 못한 분이 다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시 성명 기재 후 옆 여백에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진심입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 봉사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 천재교육이 응원하겠습니다.

 천재교육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환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착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약시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